

『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○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

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(수시-2차)로 원안 가결되었으나 사업 추진 시 추가로 포함되어 조성된 인접 토지를 반영하여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공원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매입 하고자 함.

○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증축(치매전문병동 확충)

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 방지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에 치매관리법령에 따른 치매전문병동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

《 당 초 》

- 위 치 : 구미시 신동 학서지 일원
- 대 상 : 토지 19필지 30,318㎡, 공원 52,826㎡(사용허가 22,508㎡)
- 사업기간 : 2013년 ~ 2020년
- 기준가격 : 16,678.4백만원
 - 토지 : 678.4백만원(공시지가)
 - 공원 : 16,000백만원(시설비)
- 사업내용 : 생태탐방로, 생태습지원, 수변전망대, 편의시설 등

《 변 경 》

- 위 치 : 구미시 신동 학서지 일원
- 대 상 : 토지 28필지 39,569㎡, 공원 55,980㎡(사용허가 16,411㎡)
- 사업기간 : 2013년 ~ 2021년
- 기준가격 : 18,334.6백만원
 - 토지 : 2,334.6백만원(공시지가)
 - 공원 : 16,000백만원(시설비)
- 사업내용 : 생태탐방로, 생태습지원, 수변전망대, 편의시설 등

《세부변경 내용》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
위 치	구미시 신동 학서지 일원	구미시 신동 학서지 일원	
부지면적	30,318㎡	39,569㎡	증 9,251㎡
부지매입	63억원	99억원	증 36억원

□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증축(치매전문병동 확충)

- 위 치 :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/ 구미시 야은로 37-1(부곡동)
- 대 상 : 1,000m² 증축(부곡동 산 36-2번지 합필)
- 기준가격 : 2,940백만원
 - 건물 : 2,768백만원(건축비)
 - 장비 : 172백만원(장비보강)
- 사업기간 : 2021년 ~ 2022년
- 주요시설
 -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 집중 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 확충
 - 치매환자 비약물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 확충

4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, 2022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 등 2건임.

○「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」은

- 2012년도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인 <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사업>에 선정되어 추진했던 사업으로,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총 사업비 160억원(국 30, 도 60, 시 70)을 투입해 신동 학서지 일원에 수변산책로, 수변전망대, 생태습지원 등을 건립하였음.
- 자연친화적 생태공원 확충으로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- 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 사업 추진 시 추가로 포함되어 조성된 인접 토지를 반영한 공원의 실제 이용 토지 취득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.

○「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증축」은

- 2020년도 보건복지부의 <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공모>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,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약 29억원(국 15, 도 4, 시 10)을 투입해 부곡동 산36-2번지 일원의 시유지에 연면적 1,000㎡ 규모의 치매전문병동을 추가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임.
-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치매환자에 대한 행동심리증상 집중 치료, 비약물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. 치매질환에 대한 집중적 전문 치료를 제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의 고통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